

少陰人 · 少陽人 처방에 대한 四象人의 반응에 대한 임상보고

김효정 ·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 의료연구부

Abstract

A Clinical Report on the Adverse Reactions of Sasangin by the Prescriptions of Soeumin · Soyangin

Kim Hyo-Jung · Kim Jong-Yoel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adverse reactions by the prescriptions of Soeumin · Soyangin and to compare the tendency of their symptom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al type.

2. Methods

The clinical data for this study were based on the medical records of total 91 cases collected from an oriental clinic during 1996-2004. Their constitutional types were diagnosed by a specialist and then confirmed by drug reactions. To evaluate reliability of the analysis, we only analysed the cases above grade C. The target prescriptions were Palmulgunja-tang, Bojungikgi-tang, Hyangsayangwi-tang, Ijung-tang, Hyeongbangsabaek-san, Jeoryeongchajeonja-tang, Yanggyeoksanhwa-tang, Yangdokbaekho-tang and the sorts of Jihwang-tang..

3. Results and Conclusion

The prescriptions which were not suitable for their Sasang constitutional type induced indigestion, stomachache and evacuation troubles basically. Besides, the prescriptions of Soeumin caused some fever of the upper body and skin on Taeumin and Soyangin. And the prescriptions of Soyangin lead to more severe digestive and evacuation troubles on Taeumin and Soeumin.

4. Conclusion:

This study need to be compensated by additional clinical studies which are more systematic and continuous. This way we can make the firm evidence for approving the difference of drug susceptibility according to the Sasang constitutional type

Key Words : Adverse Reaction, Constitutional Type, Yangdokbaekho-tang, Jihwang-tang

I. 緒 論

四象醫學에서는 肺脾肝腎의 臟局 大小에 따른 편차에 의해 사람의 체질을 넷으로 나누고, 분류된 四象人별로 서로 다른 생리기전 및 병리기전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¹ 따라서 太少陰陽人의 體質病證을 치료하는데 있어서도 병리적 현상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藥物 및 處方을 체질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치료 원칙으로 하고 있다.² 이는 四象醫學에서 사용되는 약물 및 처방이 개별 病症의 치료뿐 아니라 각 체질 고유의 생리적·병리적 편차를 개선시킬 것을 목적으로 체질별로 상이한 방향성을 갖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이라 하겠다.³⁻⁷ 따라서 四象醫學에서는 본인의 체질에 맞지 않는 타 체질의 약물 및 처방을 복용하였을 때는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량한 반응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실제 임상에서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까지 이에 관한 임상적 보고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기관에 내원하여 소음인·소양인 처방을 복용하고 불량한 반응을 보인 임상 사례를 보고하고, 각 처방에 대해 체질별로 나타나는 부작용의 양상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익산 원광한의원에 내원한 9353명의 환자 중에 체질이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음인 혹은 소양인 처방을 1회)이상 복용하고 불량한 반응을 호소한 자를 연구대상을 하였다. 소음인 처방을 복용하고 부작용을 호소한 경우는 태음인이 18명, 소양인이 13명, 태양인이 1명으로 총 32명이었으며 소양인

처방을 복용하고 부작용을 호소한 경우는 태음인이 37명, 소음인이 21명 태양인이 1명으로 총 59명으로 조사되었다.²⁾ (table 1, 2)

Table 1.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showing Adverse Reactions by Soeumin Prescriptions

(단위: 명)

처방	TE*	SY	TY	Total
팔물근자탕	5	6	0	11
보중익기탕	3	5	0	8
향사양위탕	6	1	0	7
이중탕	4	1	1	6
Total	18	13	1	32

* TE: Taeumin, SE: Soeumin

SY: Soyangin, TY: Taeyangin

Table 2.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showing Adverse Reactions by Soyangin Prescriptions

(단위: 명)

처방	TE	SE	TY	Total
형방사백산	2	1	0	3
저령차전자탕	2	1	1	4
형방지황탕	7	4	0	11
목단지황탕	5	2	0	7
육미지황탕	5	1	0	6
독활지황탕	3	7	0	10
양격산화탕	10	4	0	14
양독백호탕	3	1	0	4
Total	37	21	1	59

2. 체질진단 및 등급분류 기준

1차적으로 진단의의 體形·容貌·性格·病證에 대한 진찰로 체질이 진단되고 2차적으로 해당 체질의 처방을 복용하여 主證 혹은 素證이 뚜렷하게 개선된 대상자를 해당 체질로 확진하였다. 또한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체질 진단의 등급을 A,B,C,D의 4개 등급으로 분류였으며, 분류 등급은 처방의 복용량 및 주소증의 호전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C등급 이상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Table 3,4,5)

2) 소음인 처방에 대한 소음인의 부작용, 소양인 처방에 대한 소양인의 부작용은 제외하였음.

1) 1회 처방 단위는 1제(20첩)를 기준으로 함.

Table 3. Criteria for the Grading of Constitutional Type Diagnosis (* pack: 貼)

Grade	Dosage of medicines	Frequency of efficacy
A	more than 140 packs*	more than 7 times
B	more than 60 packs	more than 3 times
C	more than 20 packs	more than 1 time
D	less than 20 packs	no obvious effect

Table 4.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showing Adverse Reactions by Soeumin Prescriptions according to diagnosis grades

(단위: 명)

Grade	TE	SY	TY	Total
A	3	2	1	6
B	1	4	0	5
C	14	7	0	21
Total	18	13	1	32

Table 5.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showing Adverse Reactions by Soyangin Prescriptions according to diagnosis grades

(단위: 명)

Grade	TE	SE	TY	Total
A	7	2	1	10
B	10	3	0	13
C	20	16	0	36
Total	37	21	1	59

3. 부작용의 범주

본 연구에서는 부작용의 범주를 환자가 호소 하던 主訴證이 처방 복용 후에 더욱 악화되거나 기존에 없었던 증상이 생겨 환자가 불편을 호소 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하였다. 여기에 땀, 대변, 소변, 소화, 수면 상태를 포괄하는 素證의 양상이 체질별 完實無病 조건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변화 한 경우를 포함하였다⁸

부작용은 체질을 진단하는 초기 과정에서 체 질에 맞지 않는 처방을 복용하여 유발된 것과 체 질진단이 완료된 이후에 약물을 변경하여 투여 하는 과정에서 유발된 것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 하였다.

4. 대상 처방

대상이 되는 처방은 각 체질의 체질병증을 치료하는 데 기본이 되며 임상에서 빈용되는 처방 을 중심으로 하였다. 소음인 처방으로는 八物君子湯, 補中益氣湯, 香砂養胃湯, 理中湯類³⁾을, 소 양인 처방으로는 荊防瀉白散, 豬苓車前子湯, 荊防地黃湯, 牡丹地黃湯, 六味地黃湯, 獨活地黃湯, 涼隔散火湯, 陽毒白虎湯⁴⁾을 최종적으로 선별하 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3) 소음인 처방의 약물 구성

(단위: 錢/1첩)

소음인 처방	인삼	황기	백출	감초	대조	당귀	천궁	백작약	소엽	생강	진피	곽향	반하	향부자	산사육	사인	건강	백두구	육계	부자
팔물군자탕	2	1	1	1	1	1	1	1		1	1									
보중익기탕	3	3	1	1	1	1			0.5	1	1	0.5								
향사양위탕	1		1	1				1		1		1	1	1	1	1	1			
관계부자이중탕	1		1	1			1			1							1		1	1

4) 소양인 처방의 약물 구성

(단위: 錢/1첩)

소양인 처방	형개	방풍	강활	독활	복령	택사	저령	차전자	활석	숙지황	산수유	석고	생지황	목단피	지모	치자	인동등	연교	박하
형방사백산	1	1	1	1	2	2						1	1		1				
저령차전자탕	1	1	1	1	2	2	1.5	1.5				1			1				
형방지황탕	1	1	1	1	2	2		1		1	1								
양격산화탕	1	1										1	2		1	1	2	1	1
지황백호탕		1		1								5	4		2				
육미지황탕										4	2								
독활지황탕		1		1	1.5	1.5				4	2			1					

5. 조사 방법

복용 전과 후의 반응이 기록된 차트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후향적 조사 연구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분석

1. 소음인 처방에 대한 반응

소음인 처방에 대한 각 체질별 반응을 살펴보면, 우선 八物君子湯의 경우 소양인과 태음인 모두에서 熱證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얼굴과 몸에 열이 오르고, 입이 마르며 피부에 반진이나 열꽃이 생기는 반응을 특징적으로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반응은 소양인에서 보다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또한 두통, 인후통, 항배강 및 반진, 열꽃 등 주로 인체의 상부와 피부 쪽에 불량한 반응이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복창, 설사 등의 소화기 및 배변관련 증상을 부작용으로 호소하였다. (table 6)

Table 6. The Adverse Reactions by Palmungja-tang

(단위: **건수, 명)

팔물군자탕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
두통	1**	2	
면열		3	
구건, 인통	1	1	
항배강		2	
열감, 발열, 한출	2		
반진, 열꽃		3	
홍민	1		
소화불량		2	
속쓰림, 속불편	1	1	
복창	1		
변당, 설사	3	1	
단기	1		
부종	1		
상한, 전신산통	1	2	
Total	5명	6명	0명

* Multiple answer is available

5) 팔물탕계열에는 독삼팔물탕에 대한 반응도 포함함.

다음으로 補中益氣湯에 대한 태음인, 소양인의 반응을 살펴보면 면열, 면적, 번조, 열감, 반진, 피부 소양감등의 증상을 공통적으로 호소하여 八物君子湯에 대한 반응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즉 태음인과 소양인이 공통적으로 熱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소양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과 더불어 식욕 항진, 속쓰림, 설사 등의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7)

Table 7. The Adverse Reactions by Bojunggi-tang

(단위: **건수, 명)

보중익기탕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
면열, 면적	1**	1	
불면		1	
기침, 가래		1	
홍민	1		
발한		1	
번조, 열감	1	1	
반진, 피부소양		2	
식욕항진		1	
오심, 탄산		2	
설사		1	
소변빈삭	1		
무력		1	
부종		1	
Total	3명	5명	0명

* Multiple answer is available

이에 비해 香砂養胃湯의 경우 주로 소화불량, 속쓰림, 더부룩함,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및 배변관련 증상을 주로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반응은 소양인보다 태음인에 있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8)

Table 8. The Adverse Reactions by Hyangsayangwitang

(단위: **건수, 명)

향사양위탕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
두통	1**		
열감	1		
소화불량	2	1	
복중불편, 복창	3		
구토	1		
변당, 설사	2		
Total	6명	1명	0명

* Multiple answer is available

理中湯類⁶⁾에 대한 반응으로는 복통, 변비, 설사 등의 소화기 및 배변관련 증상을 기본으로 하여, 태음인과 태양인의 경우 현훈 및 핏력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Table 9. The Adverse Reactions by Ijung-tang

(단위: **건수, 명)

이중탕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
현훈, 명함	1**		1
다몽	1		
복통	1		
변비	1		
설사	1	1	
핏력	1		
수족저립			1
Total	4명	1명	1명

* Multiple answers are available

2. 소양인 처방에 대한 반응

다음으로 소양인 처방에 대한 각 체질별 반응을 살펴보면, 우선 荊防瀉白散에 대해서는 태음인의 경우 두통, 기침, 안면부종 및 반진 등의 상초부위 증상을 주로 호소하였으며 소음인의 경우는 오심, 변당 등의 소화기 및 배변관련 증상을 호소하였다. (table 10)

Table 10. The Adverse Reactions by Hyeongbangaabaeksan

(단위: **건수, 명)

형방사백산	태음인	소음인	태양인
두통	1**		
안면부종, 안면반진	1		
기침	1	1	
소화불량	1		
오심		1	
변당		1	
Total	2명	1명	0명

* Multiple answers are available

또한 豬苓車前子湯에 대해서는 태음인과 소음인 모두가 소화불량 및 변당, 설사등의 소화기 및 배변관련 증상을 공통적으로 호소하였으며 태양인 1인이 소화불량과 더불어 두통, 현훈, 불면, 구갈, 정충 등의 다양한 상초부위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Table 11. The Adverse Reactions by Jeoryeongchajeonjatang

(단위: **건수, 명)

저령차전자탕	태음인	소음인	태양인
두통			1**
현훈			1
불면			1
구갈			1
기침, 가래			1
정충			1
오심, 소화불량		1	1
변당, 설사	1	1	
핏력	1		
Total	2명	1명	1명

* Multiple answers are available

다음으로 荊防地黃湯, 牡丹地黃湯, 六味地黃湯, 獨活地黃湯 등의 지황탕류의 처방에 대해서는 소음인과 태음인이 소화불량, 속쓰림, 더부룩함, 복통, 구토 등의 소화기 증세를 공통적으로 호소하였다. 또한 변이 묽어지고 설사를 하는 경향도 태음인과 소음인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음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과 더불어 피로감이 증가하고 무기력하며 부종 증세가 동반되었으며 태음인의 경우에는 두통 및 불면, 흥민 등의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12, 13, 14, 15)

6) 이중탕류에는 궁귀충소이중탕, 관계부자이중탕, 하수오부자이중탕에 대한 반응을 포함함.

Table 12. The Adverse Reactions by Hyeonbangjijhwangtang

(단위: **건수, 명)

형방지황탕	태음인	소음인	태양인
불면	2**		
홍민	1		
단기	1		
소화불량	3	1	
복창, 속불편	1	3	
변당, 설사	3	1	
수장한	1		
부종		1	
피로		1	
마목감	1	1	
Total	7명	4명	0명

* Multiple answers are available

Table 13. The Adverse Reactions by Dokhwajijhwangtang

(단위: **건수, 명)

목단지황탕	태음인	소음인	태양인
구건		1**	
불면	1		
속쓰림, 속불편	1	1	
복창, 복통	3	1	
변당, 설사	3		
부종		1	
발기부전		1	
Total	5명	2명	0명

* Multiple answers are available

Table 14. The Adverse Reactions by Yukmijijhwangtang

(단위: **건수, 명)

육미지황탕	태음인	소음인	태양인
두통	1**		
구토		1	
복통	2	1	
설사	2		
피력	1		
Total	5명	1명	0명

* Multiple answers are available

Table 15. The Adverse Reactions by Dokhwajijhwangtang

(단위: **건수, 명)

독활지황탕	태음인	소음인	태양인
두통		1**	
불면		1	
홍민	1		
가래	1		
소화불량(오심, 탄산)	2	2	
복창, 복통		3	
설사, 변당	1	4	
무력		1	
부종		1	
신통		1	
Total	3명	7명	0명

* Multiple answers are available

凉隔散火湯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음인과 태음인이 소화불량, 속쓰림, 오심, 복통, 장불안 등의 소화기계 증상을 공통적으로 호소하였으며 설사 및 변비 등의 배변과 관련된 불량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소음인은 현훈 및 안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태음인의 경우에는 열꽃이 피고 두면부에 발열감이 있으며 구갈, 현훈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table 16)

Table 16. The Adverse Reactions by Yanggyeoksanhwatang

(단위: **건수, 명)

양격산화탕	태음인	소음인	태양인
현훈	1**	1	
안혼		1	
구건	1		
두면발열, 열감, 열꽃	2		
홍민	1		
소화불량(오심, 탄산)	4	2	
복통	3	1	
설사, 변당	5	2	
변비	1	2	
마목감	1		
Total	10명	4명	0명

* Multiple answers are available

陽毒白虎湯 역시 속쓰림 및 설사 등의 증상을 보여 涼隔散火湯과 유사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table 17)

Table 17. The Adverse Reactions by Yangdokbaekhotang

(단위: **건수, 명)			
양독백호탕	태음인	소음인	태양인
안면부종	1**		
안구, 상지부 통증	1		
속쓰림	1	1	
복통	1		
설사	3		
Total	3명	1명	0명

* Multiple answers are available

IV. 고 찰

東武 李濟馬(1837-1900)는 『草本卷』에서 “太陰藥은 通外하고 少陽藥은 清腸하며, 太陽藥은 固中하고 少陰藥은 溫裏한다”⁹⁾고 하여 체질별 약성의 대체를 밝혔으며, 『保健省 東武遺稿』를 통해 “태음인 肺藥은 通力이 유여하고 소음인 脾藥은 升力이 유여하며 소양인 腎藥은 降力이 유여하며 태양인 肝藥은 塞力이 유여하다”¹⁰⁾고 하여 체질병증을 치료하는 약물에는 각기 일정한 치료의 방향성이 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 또한 본인의 체질에 맞지 않는 타 체질의 약을 凶藥이라 하여 체질 병증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氣의 升降通塞을 방해하여 오히려 역작용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류¹¹⁾는 四象人별로 나타나는 역작용의 증상에 일정한 패턴이 있어 사상인 진단에 유용한 지표가 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즉 태음인은 陰陽具實하고, 소양인은 陽實陰虛하며, 소음인은 陰實陽虛하고, 태양인은 陰陽具虛하다는 원리 하에 타 체질의 처방을 복용한 경우에는 기능항진 혹은 저하의 일정한 반응이 나타난다고 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임상데이터를 바탕으로 체질별 부작용 사례를 조사·분석해 본 결과 체질처방에 대한 부작용이 실제로 체질별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소음인 처방에 대해서는 태음인과 소음인이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음인 처방을 타 체질이 복용한 경우에는 거의 모든 처방에서 소화불량, 속쓰림, 복통 등의 소화기 증상과 변당, 설사 등의 대변관련 증상을 공통적으로 호소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인체 상부와 피부 등에 熱證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별 처방에 대한 체질별 반응의 양상을 살펴보면, 八物君子湯과 補中益氣湯¹²⁾에 대해서는 태음인과 소양인이 공통적으로 熱證이 증가하는 특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八物君子湯이나 補中益氣湯이 주로 溫熱한 약제로 구성되어 있어 태음인과 소양인의 유여한 熱氣를 더욱 복돋아 생기는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특히 八物君子湯을 복용하고 면열, 반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한 소양인 중에는 이후에 형방패독산이나 형방지황탕, 황련지황탕 종류의 다소 寒冷한 처방으로 주소증이 호전된 경우가 있었다. 이는 소양인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傷寒, 泄瀉 등의 寒證의 양상을 나타내나 근본적으로 裏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溫熱한 소음인 처방에 대해 오히려 부작용을 나타낸 것으로 체질 약리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八物君子湯과 補中益氣湯에 대해 태음인의 반응이 소양인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태음인과 소양인이 공통적으로 表寒裏熱을 기본병리로 하고 있어 表熱裏寒의 소음인 병리를 치료하고자 하는 약물에 대해 유사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비해 香砂養胃湯의 경우 熱證의 증가 양상보다는 소화불량, 복통, 복창,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및 대변관련 증상을 주로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香砂養胃湯¹³⁾ 자체가 이러한 부작용을 새롭게 유발한다기 보다는, 본래 소화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군에 본 처방을 복용하도록 하였

으나 체질에 맞지 않아 본래 호소하던 주소증이 보다 심화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이는 부작용의 범주에 처방을 복용하고 새롭게 나타난 증상 뿐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경우를 함께 포함시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향성으로 유추된다.

마찬가지로 理中湯類를 복용하고 현훈이나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것 또한 소음인이 아닌 경우에 본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증상이 보다 심화되는 방향으로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소양인 처방에 대한 타 체질의 부작용 양상을 살펴보면, 荊防瀉白散, 豬苓車前子湯, 荊防地黃湯, 牡丹地黃湯, 六味地黃湯, 獨活地黃湯, 涼膈散火湯, 陽毒白虎湯의 모든 처방에서 태음인과 소음인이 모두 소화불량이나 설사 등의 소화기 및 배변관련 증상을 공통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소양인 처방이 본래 表寒裏熱의 병리를 다스리는 寒冷한 약제로 구성되어 있어, 脾胃의 陽暖之氣가 부족한 소음인이 복용할 경우 설사나 소화불량을 쉽게 유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태음인의 경우도 裏熱의 병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태음인의 裏熱은 脾胃의 熱이 아니라 肝熱로서, 태음인의 脾胃는 뚜렷한 한열의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으며 소양인 처방의 寒冷한 약물에 대해 위가 다소 차가워져 소음인과 마찬가지로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밖에도 개별적인 소양인 처방에 대한 체질별 반응의 양상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소화기능 및 배변관련 증상 뿐 아니라 실제로 매우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개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증상이 본인의 체질에 맞지 않는 처방을 복용하고 난 후에 보다 심화되어 부작용의 형태로 발현되는 것으로 개개인 호소하는 개별증상이 다양한 만큼 해당 처방의 부작용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체질에 따른 부작용의 양상

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主訴證 보다는 대소변 상태 및 수면, 소화, 발한, 한열 등의 四象醫學적 견해가 반영된 素證 위주로 조사·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본인의 체질에 맞지 않는 처방을 복용한 경우 소음인 처방과 소양인 처방 모두가 기본적으로 소화기 및 배변관련 증상을 유발하였으며, 소음인 처방에 대해서는 熱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소양인 처방에 대해서는 이러한 증상이 보다 심화되는 방향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일정한 체질 처방에 대해서 타 체질의 表病者와 裏病者가 경험한 부작용의 양상 및 타 체질의 表病처방과 裏病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음인의 소음인 처방에 대한 부작용 및 소양인의 소양인 처방에 대한 부작용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체질에 대한 부작용에만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에는 같은 체질 내에서도 병증 분류에 따른 처방의 부작용도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경우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기록을 바탕으로 후향적으로 진행된 조사 연구로서, 부작용의 양상에 대한 정형화된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다만 사상체질 처방에 대한 부작용 양상에 대한 임상적인 보고를 시도한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이와 같은 추가적인 임상 증례 보고를 통해 체질별 약물 감수성의 차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임상적 기반을 확보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사상 처방의 복용 방법 및 복용량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나아가 四象醫學의 약물 사용 원리를 규명하여 향후 체질별 맞춤 약물 개발 연구를 위한 보다 확고한 임상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일개 한방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소음인 혹은 소양인 처방을 복용한 이후 불량한 반응을 호소한 대상자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체질별 부작용의 양상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소음인 처방과 소양인 처방을 타 체질의 四象人이 복용한 경우,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부작용 증상이 있었다.

2. 소음인 처방인 八物君子湯과 補中益氣湯에 대해서는 태음인과 소양인이 공통적으로 熱證이 증가하는 특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香砂養胃湯의 경우 熱證의 증가보다는 소화불량, 복통, 복창,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및 대변관련 증상을 주로 호소하였고 理中湯類의 경우 현훈이나 설사 등의 증상을 보였다.

3. 소양인 처방인 荊防瀉白散, 豬苓車前子湯, 荊防地黃湯, 牡丹地黃湯, 六味地黃湯, 獨活地黃湯, 涼隔散火湯, 陽毒白虎湯의 모든 처방에서 태음인과 소음인이 소화불량이나 설사 등의 소화기 및 배변관련 증상을 공통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향후 체질 맞춤 약물치료의 임상적 근거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정형화된 약물부작용에 대한 임상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VI.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08년도 한국한의학연구원 의 기관고유사업의 일환으로 “체질건강수준 표준개발(과제번호: K0802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VII. 참고문헌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사상의

학. 개정증보 2판. 집문당, 서울. 2004:125-126.

2. 정봉연, 고병희, 송일병. 사상의가에서 분류한 각 체질약물에 관한 문헌 고찰. 사상의학회지. 1995;17(1):169-261.
3. 김응섭. 사상방제의 조성특점 및 사상약물의 분류원칙에 관한 초보적 견해. 사상의학회지. 1996;8(2):259-260.
4. 최송남. 사상약물의 확분원리에 대한 분석. 사상의학회지. 1996;8(1):97-99.
5. 김종열, 김경요. 사상체질별 약재 분류에 관한 연구(소양인편).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3): 1-7.
6. 김종열, 김경요. 사상체질별 약재 분류에 관한 연구(소음인편).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1): 8-16.
7. 김종열, 김경요. 사상체질별 약재분류에 관한 연구 (태음인 및 태양인편). 사상체질학회지. 2002;14(2): 1-9.
8. 장은수, 김호석, 이혜정, 백영화, 이시우. 사상 체질에 따른 소증 및 병증지표의 임상적 연구: 다기관 약진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2007;19(3):144-155.
9. 이제마 원저, 김달래 편역. 동의수세보원 초고. 정담, 서울, 1999.
10. 이제마 저, 량병무·차광석 역. 동의유고. 해 동출판사. 1999:165-166.
11. 류주열. 새로쓴 사상의학. 대성의학사, 서울, 2007.
12. 김일환, 김경요. 소음인 보중익기탕과 보중익기탕에 대한 사상의학적 비교연구. 사상의학회지. 1996;8(2):69-94.
13. 김경요, 한중현, 홍순용. 소음인 향사양위탕에 관한 문헌적 고찰. 사상의학회지. 1992;4(1):213-219.
14. 박성식, 김지용, 최재영. 양격산화탕 활용에 대한 임상적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8;10(2): 455-471.

별첨

[소양인 처방에 대한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의 부작용]

부작용 처방	체질	해당부작용	체질 등급
형방사백산	태음인	소화불량, 안면부종, 안면반진, 발열감, 두통	C
		기침 증가	C
	소음인	변당, 오심, 기침	C
저령차전자탕	태양인	두통+, 구갈, 비위상함, 현훈, 가래, 기침, 두통, 불면, 정충	A
	태음인	변당, 배변시 통증, 땀력	B
		장감증세 재발	B
	소음인	오심, 설사	C
형방지황탕	태음인	설사, 복중불안	A
		설사, 불면, 소화안됨	A
		소화불량	B
		대소변 이상	C
		단기, 흥민 심화	C
		전신두드러기(열꽃), 불면, 수장한, 변당, 소소활리, 목부음, 등뼈근	C
	소음인	소화불량	C
		속이아림, 족부 마목	A
		복창, 역류 현상증가, 혈당 상승	B
		복중 불편	C
목단지황탕	태음인	변비설사 교대	A
		변당, 복창	A
		변비 2일, 설사 10일, 복창	B
		약맛이상(느끼함), 대소변 빈삭, 변당	C
		속쓰림, 복창, 복중 불편, 불면 심화, 상하지통 심해짐	C
	소음인	복통, 복중불안	C
		부종, 구건, 발기부전	C
육미지황탕	태음인	관절통+, 좌측하 자통, 변 감소	A
		복통	B
		두통, 복통	C
		변당	C
		땀력, 설사	C
	소음인	구토, 비위상함	C
독활지황탕	태음인	오심	B
		맑은 가래	B
		체중, 흥민, 설사약간	C
	소음인	신통, 부종, 불면	A
		복통, 설사	B
		복창, 변세	B
		식후 오심, 속쓰림, 복중불안	C
		복중불편, 설사	C
		설사, 무력, 몽롱, 두통	C
		복창, 설사, 대변빈삭	C
양격산화탕	태음인	뻑뻑한 느낌, 복중불편	A
		오전복통, 설사	A
		배변불편, 안면자통, 열꽃, 설사, 복중불안	B
		설사, 복중불안	C
		구건심화, 현훈, 마목	C

		홍민	C
		두면발열심화	C
		복통, 대변빈삭	C
		소화불량	C
		설사, 하품 많아짐, 복부가 단단해짐	C
	소음인	변비 심화, 속쓰림	C
		복통, 변당	C
		설사, 오심	C
		경변, 안혼, 명함	C
		설사, 속쓰림	B
양독백호탕	태음인	아토피 피부염+, 변당, 설사	B
		복통, 대변 빈삭, 눈, 어깨, 팔 통증 증가	C
	소음인	속쓰림, 안면부종	C

[소음인 처방에 대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의 부작용]

부작용 처방	체질	해당부작용	체질등급
팔물군자탕	태음인	두통, 머리명함, 발열, 땀남, 온몸이 산처럼 무거움	A
		변당	C
		변당, 복중불편	C
		복창+, 기상시 부종+, 배뇨이상, 취침시 열감	C
		인통, 구건, 홍민, 단기, 설사	C
	소양인	전신산통, 소화불량, 면열	A
		변당, 두미열, 안혼+	B
		안색악화, 타액고임, 배변이상, 항배강, 상한, 인후열감, 두통, 복중불편	B
		전신반진	B
		턱에 열오름, 반진, 소화불량, 편두통	C
보중익기탕	태음인	항배강, 열꽃	C
		변조, 면열, 홍민	A
		발음불량 심+, 식사시 음식물 흘림+, 얼굴비트는 느낌+	C
	소양인	소변 빈삭	C
		발한+, 기침++, 가래++	A
		설사	B
		트림, 무력, 전신통증, 불면	C
		피부소양감+, 열감+	C
		면적, 부종, 속쓰림, 선기, 식욕+, 오심, 반진	C
향사양위탕	태음인	변당, 복중불안, 소화불량	C
		열감, 두통+	C
		설사+	C
		복중불편	C
		위팽창감	C
		구토, 소화불량	C
	소양인	소화불량	C
이중탕	태양인	현훈, 수족저림, 건통, 현훈, 한기	A
	태음인	설사	A
		족무력, 꺾력, 다몽	B
		현훈, 명함, 변비	C
		복통+	C
	소양인	설사	C